

# 고대 로마와 중세 스위스 군사체계의 도전과 응전

지 구 용\*

1. 서론
2. 역사의 연구
3. 국가의 도전 그리고 응전
4. 결론: 현대 한국군에 주는 교훈

## 1. 서론

사관(史觀)이란 역사적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논쟁 중에는 역사를 순환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sup>1)</sup> 역사를 순환론으로 바라볼 경우 국가가 탄생하고 멸망하며 다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1) 로버트 W. 메리(Robert W. Merry), 최원기 역, 『모래의 제국(Sands of Empire)』 (서울: 김영사, 2006), 23~136쪽. 역사 진보론과 순환론의 논쟁은 이 책의 1장(역사의 프리즘)을 참고.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고, 진화론으로 바라보면 여러국가 중 적자가 생존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순환론의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이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중국에 유리하고,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현재의 제국적 지위는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하게 되고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역사적 구성원으로써 필요한 과정이다. 역사를 개별 국가 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학 분야에서도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사(戰史)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특히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례를 고찰해봄으로써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군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sup>2)</sup> 이를 위하여 순환론을 대표하는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사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것이다. 비록 역사의 변화를 하나의 측면에서만 고려하여 균형된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에는 제한될 수 있으나 통합된 역사관을 갖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써 의미를 갖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인비는 문명사관을 주장하면서 모든 문명은 탄생과 성장을 통해 전성기를 구가하고 이후 쇠퇴하며 붕괴되는 순환적인 현상을

2) 본 논문의 주제와 유사한 연구로 김경현, “로마제국의 흥망”, 『서양고대사 연구』 vol.33, 2012, 33~92쪽. 김경현 교수의 논문은 로마제국의 흥망을 조망하면서 제국의 역사를 흥기, 존속, 쇠퇴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원인보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내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외부적 군사적 요인에 한정된 본 논문과 차이점이 있다.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명의 전성기에서는 쇠퇴로 접어들게 하는 도전적 요소가 등장하고, 이것에 효과적으로 응전한 국가는 발전하는 반면에 실패한 국가는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역사는 순환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어느 국가나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쇠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군사적 현상에서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손자가 이야기 했듯이 전쟁은 국가의 가장 큰 과업<sup>3)</sup>이며 실패할 경우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토인비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습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최소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위한 사례로 고대 로마와 중세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가 최초로 직면했던 도전 요소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sup>4)</sup>이며, 이들이 어떻게 응전하고 발전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안보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체계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건설적인 군사력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3) 손자(孫子), 박일봉 역, 『손자병법(개정판)』 (서울: 육문사, 2011), 5~10쪽.

4) 고대 로마와 중세 스위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연 및 지리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로마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졌고 내륙으로는 veii 및 갈리아족과 같이 강력한 적들로 포위된 형상이며 중세 스위스는 비록 내륙지역이지만 국가의 60% 이상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당시 주변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같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간지대이고 주변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군사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앞의 두 국가와 유사한 자연 및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인비에 의하면 첫 번째 도전은 외부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국가의 도전과 응전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이 비슷한 대한민국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클 것이다.

## 2. 역사의 연구5)

이 글의 주요 테마이면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토인비의 문명사관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이 있다. 토인비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문명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가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하며 쇠퇴하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토인비 연구의 특징은 당시의 많은 역사가들이 민족과 국가에 관심을 둔 반면에 그는 그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원인인 문명(civi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명 하에서는 국가는 단독으로 존재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접국가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특징이 결정되고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변화한다는 것은 국가도 인간과 같이 생노병사(生老病死)를 하는 운명을 갖는다는 것이며 인간과 다르다는 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운명은 도전(challenge)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응전(response)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긴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 최종 지배자로서 존재하는 이유도 자연이 주는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한 결과이고, 제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주변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의 발생지를 보면 따뜻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적도지역 보다는 춥거나 더운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왜 그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았던 것일까.<sup>6)</sup> 이것은 토인비의 주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명이 자연조건이 좋은 양자강에서

5) A. J.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홍사중 역, 『역사의 연구』 (서울: 동서문화사, 2013) ‘역사의 연구’는 필자가 본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6)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1974년에 에티오피아 북부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약 400만년에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어지며, 이후로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쪽에서 유인원들이 발견되고 있다.

발생하지 않고 황하유역에서 시작했던 이유는 황하지역이 훨씬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현 수준을 뛰어넘는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도전이라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이 포식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과 도구를 사용한 것처럼 국가도 도전에 대응하여 노력해야지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전이 있어야 하며, 국가는 반복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물질·정신·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도전에 대응하여 응전할 것인가. 토인비는 이것의 원천을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라로 생각하였다. 이들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체계적 국가체계가 수립되기 전 근대이전시기까지는 왕이나 소수의 장군에 의해서 이 역할이 수행되었으며,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체계화된 이후에는 특정기관이나 집단에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창조적 소수자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모방(模倣)하고 싶은 군중심리에서 찾을 수 있다. 지도자 또는 지도층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그를 보고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이에게 소수자로서 지휘를 넘겨주어 새로운 지도자가 도전에 응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창조적 소수자가 초기에 보였던 뛰어난 능력이 점점 퇴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토인비는 이것을 이상화(偶像化)<sup>7)</sup>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중에서

7) 토인비가 말한 3가지 이상화에는 자아(自我)의 이상화, 제도(制度)의 이상화, 기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아(自我)의 우상화이다. 자아의 우상화란 한번 응전에 성공하여 마치 자신들만이 최고이며, 그것 이외의 것은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혁신하지 않다가,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쇠락의 전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원인을 외부로 돌려 마치 뜨거운 솥의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가 새로운 도전에 고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어떻게 도전에 응전하고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인비의 문명사관을 군사분야에도 적용하려면 국가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응전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전쟁의 역사를 기술한 몽고메리는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 BC 7000년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문명의 역사보다 전쟁의 역사가 훨씬 길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쟁수행방식은 그 국가의 문화적 요소와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기술하면서<sup>8)</sup> 국가와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언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인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과거의 위인들은 대부분 군인이었으며, 과거의 기록들은 많은 것들이 전쟁에 관련된 것이었고 1815년 이전까지 세계는 최소한 1군데 이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sup>9)</sup> 이렇듯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

(技術)의 우상화가 있다. 제도의 우상화는 현재의 사회체제가 최고라고 고집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1차대전 이후 자유주의를 신봉한 나머지 다가올 2차대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술의 우상화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현대 미군이 군사혁신에 치중한 결과 초국가적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9), 79~87쪽.

9) Geoffrey Parkre, *The Military Revolution*(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5.

결국 전쟁은 응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3. 국가의 도전 그리고 응전

#### 가. 고대 로마

##### 1) 탄생, 첫 번째 도전과 응전: 강력한 주변국에 대한 전술적 다양성

로마는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중의 하나로 역사에 등장하였다.<sup>10)</sup> 당시 로마주변에는 베이이(veii)와 같은 강력한 에트루리아(etruscan)의 국가들이 즐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방어<sup>11)</sup>를 해야 했으며, 살기 위해서는

10) 로마는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알프스 북쪽지역에서 유입된 민족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로마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에트루리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상당히 우수한 문명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철을 주조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구리, 주석 등을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제조능력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방어목적의 성벽과 도로 그리고 하수도 시설을 갖고 있을 만큼 건축능력도 뛰어났다. 인드로 몬타넬리(Intro Montanelli), 김정하 역, 『로마 제국사』 (서울: 까치, 1998), 11~29쪽. 그러므로 초기 로마로써는 에트루리아족을 제압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였다.

11) 로마의 전쟁목적이 ‘방어주의’ 인지 ‘공격주의’ 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한 주장으로는 피터히더는 그의 책에서 로마가 제국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카이사르 시대로 고대 로마 역사에 있어서 비교적 후기의 일이라고 하면서 “초기에 로마는 여러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방어적이었다가 이탈리아 통일 이후 공격 및 확장적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피터히더(Peter Heather), 이순호 역, 『로마제국 최후의 100년』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28~33쪽. 반면에 페터벤더는 로마전쟁의 목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보면서 제국의 확장은 방어를 치중하다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페터벤더(Peter Bender), 김미선 역, 『제국의 부활, 비교역사학으로 보는 미국과 로마』 (과주: 이꼴리오, 2007), 36~43쪽. 이

점점 더 군사 및 공격적으로 변화해야만 했다.<sup>12)</sup> 로마가 초기에 주변의 적들과 맞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의 군사를 모방하여 군사적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는 인접국가들과는 다르게 그리스 병사들처럼 가죽갑옷으로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고, 청동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등 당시 기술을 전투에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보병과 기병을 활용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sup>13)</sup> 기원전 6세기에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Servius Tullius)에 의해 초기 로마의 군사적 기틀을 다지게 되는데, 그는 로마인 전체에 대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17~46세의 모든 남자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였다.<sup>14)</sup> 이후 BC 509년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화되면서 국가 및 군사적 조직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

로마가 맞는 첫 번째 도전은 삼니움족(Sannites)족과 갈리아족(Gauls)과 같은 강성한 주변국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기존에 로마가 상대하였던 적들과는 다르게 지형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기습을 하거나 기만을 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당시 로마의 주요 전술<sup>15)</sup>은 필랑크스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동성보다는 강력한 무게감으로

---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차전환, “기원전 4세기 로마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전투했는가?”, 『서양고대사연구』 vol.25, 2009, 119~122쪽 참고.

12)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9), 165~166쪽.

13) Donald Kagon, *On the origins of War and the Preservation of Peace*(New York: Anchor Books, 1995). pp.12~15.

14) 툴리우스의 군사개혁은 부의 소유정도에 따라 병사들을 5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재산이 11,000아세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복무에 대한 의무는 면제(이들을 *capite censi*라고 함)되었다. 툴리우스 개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김경진 외, 『서양고대사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258~259쪽. 참고

15) 필랑크스는 고대 그리스군이 중장 보병을 밀집대형으로 구성하여 전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병사들은 직경 90cm의 원형방패(호플론)를 착용하고 주무기로는 2~2.4m의 창을 사용했다. 대형은 사격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방진(phalanx)이라고 하였고 서로 간에 단단히 뭉쳐서 충격력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적을 격퇴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넓은 평야에서 서로 마주보고 전투해야지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이었다. 하지만 전술상의 비대칭성으로 로마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BC391년에 갈리아족이 알리아 전투에서 로마에 승리하여 로마가 약탈되면서 로마군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카밀루스(Marcus Furius Camilus 기원전 ?~365)가 등장하여 군대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는 그동안 모방해온 그리스 군사체제를 버리고 로마 고유의 정치적 특성과 전투환경에 맞는 로마군단(Roman Legion)을 창설하였다.<sup>16)</sup> 이 전술의 중요한 점은 뭉쳐져 있는 부대를 소규모 중대(manipulus)단위로 구분하여 10개 중대로 만들고 이들은 체스판처럼 지그재그로 배치하였다. 이것의 장점은 탄력적인 수비와 유연한 공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과거 그리스처럼 밀집대형을 선호하는 국가나 갈리아족처럼 산개형 대형 모두에 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sup>17)</sup> 이와 더불어 장비의 개선도 로마군의 더욱 강력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sup>18)</sup>, 병사들에게 일정 복무에 대한 대가를 주어 오랜 원정 작전시 가정에 안정을 주어 복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투력 상승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6) 정토용,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100』 (서울: 가람기획, 2010), 60~64쪽.

17)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9), 168~170쪽.

18) Lawrence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pp.20~22. 이 시기 무기의 변화로 그리스식 원형 방패인 호프론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위 아래가 긴 스키투름(Scutum)을 사용하여 방어력이 향상되었고, 투창(Javelin)이 등장해 원거리에서부터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투창의 끝부분을 약하게 하여 적이 주워서 재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 2) 두 번째 도전과 응전: 2차 포에니 전쟁과 로마제국의 탄생

로마군단의 창설로 완성된 로마군은 삼니움족을 정벌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절대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후에 에피루스의 피루스가 침범하는 등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도의 중대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마다 로마군단이 상대방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했던 것은 한니발의 카르타고였다. 당시 카르타고<sup>19)</sup>는 지중해의 강자로 무역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맹주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벌인 1차 포에니 전쟁(BC 265~241)에서 패해, 시칠리아 등 몇 개의 섬을 잃고 로마와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다.<sup>20)</sup> 이에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가 바로 한니발이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받은 치욕과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 스페인을 정복하고 로마에 대항한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로마와는 다르게 상업국가였기 때문에 자국의 시민들로만 군대를 구성할 수 없었고 많은 용병을 고용하여 국방을 유지해야만 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다.<sup>21)</sup> 그렇지만 한니발은 뛰어난 통솔력과 지휘술로 용병으로 구성된 4만 명의 병력과 37마리 코끼리를 동원하여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하였다. 카르타고는 로마처럼 애국심으로 뭉친 군대는 없었지만 한니발의 용병술은 이것을 만회하고 남을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로마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그의 전술은 결국 로마의 전술을

19) 카르타고는 고대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에 세웠던 도시국가. 지중해의 요지로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하였으며 지중해에서 매우 큰 세력을 떨쳤다. 기원전 6세기 중반기에 전 시칠리아를 장악했고 이후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그리스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로마와 3차례 포에니 전쟁을 벌였으나 패하여 멸망하게 된다.

20) Donald Kagan, *On the origins of War and the Preservation of Peace*(New York: Anchor Books, 1995). pp.22~26.

21) 윌리엄 위어(William Weir), 이덕열 역, 『세상을 바꾼 전쟁』(서울: 시아, 2009), 445~449쪽.

연구하면서 완성될 수 있었다. 자신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대에게는 로마의 전략은 더 이상 우위로 작용할 수 없었다.

BC 216년 칸나이에서 로마군은 8만 명의 병사 중 약 5만 명이 전사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공격적인 전략에서 수세적인 전략(Fabius Plan)으로 변경해야만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sup>22)</sup> 결국에 스키피오가 등장하여 한니발의 군대를 로마에서 몰아내고 자마전투(BC 202)에서 궤멸시켰지만 로마의 군사체계에는 심대한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료한 사람은 마리우스(Gaius Marius, BC 157~86)였다. 그는 당시 변경에 있는 귀족 출신으로 출세를 위한 기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입지전적인 업적은 순전히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누미디아의 유구르타를 제압하고 셀틱족을 물리치면서 로마를 위협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다. 로마를 구한 업적을 놓고 비교해보면 스키피오가 훨씬 위대했지만 마리우스가 더 중요한 것은 이후 로마의 장구한 역사를 유지한 중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니발과 본토에서 10년 이상의 전투로 로마는 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군대의 기본이 되었던 시민층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주력은 시민으로 구성된 보병이었으며, 용병들은 기병 등 기행병과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층이 감소는 로마군에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마리우스는 군대를 충원하기 위해 당시 증가하고 있지만 군복무에 대한 의무는 없었던 카피테 켄시를 입대시키고 초기 장비와 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군단 상의 계층별로 구분된 체계를 계층이 아닌 부대별로 구분시키는 코호르트(cohort)체계로 변경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의

22) 마크 힐리(Mark Hilly), 정은비 역, 『칸나이 BC216: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로마군을 격멸하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48~52쪽.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 빈민층들이 대거 군대로 유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군대 내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어 군대 내에서 단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sup>23)</sup> 그래서 마니플루 시기에는 계층별로 캠프가 구분되었지만 코호르트 체계에서는 같은 코호르트끼리 숙영하고 축성을 하며, 전투를 하면서 전우애를 증가시키려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sup>24)</sup> 이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군대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더욱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 3) 세 번째 도전과 응전: 자아의 이상화에 빠지는 로마군

두 번의 도전과 응전에 성공한 로마군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군대로 거듭났으며 카이사르 시기에는 로마 공화정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행성도 폭발하기 전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3세기 이후 로마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sup>25)</sup> 이 시기부터 로마의 영토는 너무 광활해져서 자국의 힘으로 영토를 방어하기 어려워져 속국을 건설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어로써 하며, 로마군은 예비대로 운용하여 적의 공격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23) Keppie, Lawrenc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Loma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pp.57~79. 마리우스의 이외의 군사적 변화로는 triarii가 짧은 창을 버리고 투창(pilum)을 사용하면서 계층 간의 무기의 통일성이 증대되어 코호르트에 적합한 체계로 변화되었으며, 병사 중에서도 부유한 층에서는 자신의 소유품을 운반하는 친민들을 대동하였는데 마리우스는 이것을 없애고 자신의 소지품은 반드시 자신이 운반하게끔 하여 군대내 신분의 차이를 억제하여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로마군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차전환, “기원전 4세기 로마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전투했는가?”, 『서양고대사연구』, vol.25, 2009, 119~122 쪽 참고.

24) 배은숙, 『강대국의 비밀-로마제국은 병사들이 만들었다』(서울: 문학동네, 2008), 310~314쪽.

25) 2세기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시기로 기변(Edward Gibbon)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도미티아누스(81~96)가 죽은 뒤부터 코모두스(180~192)가 즉위하기 전까지의 시기였다고 말하였다.

체계로 변경되었다.<sup>26)</sup> 즉,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상무정신이 조금씩 퇴색되어 갔으며 타국이 제공하는 안전함 속에 그들은 편안함을 영위하고, 오히려 주변국이 여러 도전에 대응하며 발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sup>27)</sup>

이러한 안일한 때문이었을까, 로마의 도전으로 성장한 로마군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마리우스가 실시한 군사적 변화는 군대에 필요한 병력을 늘리며 제국에 존재하는 많은 실업자를 군대로 흡수하면서 군의 직업화를 유도하고 숙련도와 기술은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BC 1세기에 발생한 내전(The civil war) 이후로 군대는 점점 사병화되었으며, 3세기 군인황제시기가 시작되면서 병사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모병한 장군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하였다.<sup>28)</sup> 그들은 장군을 따라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약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만 따르게 되었고, 장군들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실제로 코모두스가 죽은 이후로 60년 동안 황제가 21명이나 바뀌었고 황제들도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sup>29)</sup>

병사들이 돈의 유혹에 탐닉한 이후로 제국을 유지했던 그들의 전투력은 급속하게 저하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흑독하도록 악명 높았던

26) Edward N. Luttwak, *The Grand Strategy of Roman Empir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p.23~27.

27) 피터 터친(Peter Turchin), 윤길순 역, 『제국의 탄생(War and Peace and War)』(서울: 웅진, 2006) 이것은 피터 터친(Peter Turchin)이 주장하는 단층선 이론으로 그의 저서(제국의 탄생; War and Peace and War)에서 제국의 변두리에서 제국과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 제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8)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서울: 책세상, 2009), 190~193쪽.

29) 전개서, 229쪽.

로마군의 훈련시스템<sup>30)</sup>은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고 심각하게 군기가 악화되어 지역민을 약탈하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더 이상 로마군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도전적 시기에 창조적 소수자 역할을 해왔던 황제 및 장군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보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군인들의 봉급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배신하여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향해 칼뿌리를 겨누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증가할수록 제국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내 반목과 갈등이 국론을 분열시켜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극에 달해 결국 395년에 동서 로마로 분열되게 되고 내분과 이민족의 반란으로 결국 서로마가 476년 게르만족 군인인 오도아케르(Odoacer)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 나. 중세 스위스

##### 1) 탄생, 첫 번째 도전과 응전: 당대 최고인 기병을 격파

역사가 순환된다고 가정한다면, 고대 로마의 군사체계를 모범적으로 답습한 것이 중세 스위스일 것이다. 378년 고트족 기병대가 아드리아노플에서 당대 최강인 로마군에게 승리를 한 이후에 기병은 14세기까지 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고트족에 의해 동쪽으로 부터 등장(鎧子)가 도입되면서 기병의 위력은 더욱 증가하였고 보병은 단지 진지방어, 포위작전시 지원적인 역할에만 국한되어 기병들이 지켰을 때 실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졌다.<sup>31)</sup>

30) 당시 로마군의 훈련시스템을 확인하려면, 배은숙의 『강대국의 비밀』 중 제2장을 참고.

31) Oman, C.W.C. *The art of war in the Middle age*(Ithaca: Cornell Paperbacks,

하지만 기병은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숙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과 여유가 있는 국가와 귀족만이 가질 수 있었다.<sup>32)</sup> 이러한 측면에서 중세 스위스는 주변국에 피해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열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등 대부분 산들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경제력을 발휘하기에는 제한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위스가 국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 부락의 연맹체로 존재할 당시에, 주위에는 제국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들은 기병과 용병들도 무장하여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스위스에게는 첫 번째 도전을 안겨주게 되었다.

열악한 스위스가 선택한 것은 로마식의 강력한 팔랑스 전술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월등한 무기가 없어도, 오직 강한 연대감과 용기만 있었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투박하지만 강력한 할베르트(harlverd)와 파이크(pike)로 무장하고 가슴의 흉갑을 제외하고는 방어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옆과 뒤를 동료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우애는 강력한 전투력으로 창출되었다.<sup>33)</sup> 이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우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때로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sup>34)</sup>

---

1953), pp.35~40.

32) Michael Howard, *War in European Hist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p.3~7.

33) Oman, C.W.C. *The art of war in the Middle age*(Ithaca: Cornell Paperbacks, 1953), pp.75~77.

34) 크리스터 외르겐젠(Christer Jorgensen) 외, 최파일 역, 『근대전쟁의 탄생: 1500~1763년 유럽의 무기, 전투, 전술』 (서울: 미지북스, 2011), 10~12쪽.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는 기병위주의 유럽전쟁사에 경종을 알리게 되는데, 스위스 동맹군은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를 맞아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스트리아 원정군은 1,000기의 기병과 4,000명의 보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스위스는 농민과 목동으로 이루어진 창병이 전부였다. 스위스 군들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방진을 구성해 산비탈을 이용하여 급습을 하였고 마치 푸줏간의 양처럼 그들을 도륙하였다.<sup>35)</sup> 이후로 스위스군의 용맹과 명성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으며, 아무리 강력한 국가들도 스위스군과 전투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였다.

## 2) 두 번째 도전과 응전: 스스로의 자만에 갇히다.

스위스군의 전술체계는 로마나 마케도니아처럼 단순하지만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르가르텐 전투 이후 약 150년 동안 스위스군은 패배를 모르고 승리를 하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스위스도 로마처럼 가장 찬란한 순간에 도전들이 찾아오게 된다. 우선 그들을 모방하는 군대들이 출현하게 되어 그들의 전술적 우위가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 독일의 란츠크네히트(Landsknechte)<sup>36)</sup>는 막시밀리안 공이 스위스 및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 스위스군과 똑같은 전술과 복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스위스군과 란츠크네히트가 맞붙은 라비코카(La Bicocca, 1522)전투에서 스위스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방을 공략할 수 없었고 자신들도 엄청난

35)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서울: 책세상, 2009), 348~350쪽.

36) 15세기부터 16세기 후반까지, 독일에서 파이크를 주무기로 사용했던 용병으로, 자신의 나라(lands)에서 황제에게 봉사하는 사람(knecht)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기쿠치 요시오, 김숙이 역, 『용병 200년의 역사』(고양: 사과나무, 2011), 93~116쪽. 참고

피해를 감수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sup>37)</sup>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술을 배우면서 자마 전투의 승리를 가져 온 것처럼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스위스군과의 전투를 통해 그들을 격파할 해법을 찾기 시작했으며, 군사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측면을 더욱 촉진시켰다. 스페인 고르도바는 고대 로마병사들의 마케도니아의 사리사 창병을 격파한 것에서 착안을 하여 스페인 검병(Spanish sword and buckler man)을 만들었고, 이들은 백병전에서 오히려 스위스군보다 우세하였다. 그리고 화포가 등장하면서 한 곳에 뭉쳐진 스위스 전투대형은 오히려 좋은 표적을 제공하였으며, 축성술의 발달로 더 이상 스위스군의 용맹함만으로는 전장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sup>38)</sup>

자신을 모방한 군대의 출현과 전술의 단점을 간파하는 적의 공략법 그리고 군사무기의 발달로 이루어진 전장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스위스군은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하였다. 화포의 위력은 크레시 전투(1346)<sup>39)</sup>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했음에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1515년 마그리노 전투에서 적 포병의 사격에 엄청난 피해를 받을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아무런 변화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스위스만의 독특한 국가체계에 기인한 것이 큰 이유인데 연합정부는 군대가 어느 특정세력에 의해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상시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만 소집하였으며<sup>40)</sup>, 지휘관도 일반병사 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임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분야에서 창조적 소수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했고, 주도적으로 군사적 변화를

37) Oman, C.W.C. *The art of war in the Middle age*(Ithaca: Cornell Paperbacks, 1953), pp.82~85.

38) Oman(1953), pp.87~92.

39) 정토웅,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100』 (서울: 가람기획, 2010), 140~143쪽.

40)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9), 351쪽.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 병사들은 하나의 구실점을 찾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용병으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품고 있었던 애국심과 전우애는 점점 돈벌이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 각 국가들은 르네상스에 의해 군사학을 연구하며 국가의 주도하에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다르게<sup>41)</sup> 스위스군은 모라트와 낭시전투<sup>42)</sup>에서 그들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음에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존의 전술만 고수하려는 경향, 즉 자신의 이상화에 빠져 변화하는 양상을 따라 잡지 못하여 역사의 뒀안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 4. 결론: 현대 한국군에 주는 교훈

### 가. 고대 로마와 중세 스위스의 유사 및 차이점

지금까지 고대 로마와 중세 스위스가 당면했던 도전과 그것에 어떻게 응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국가 사이에는 약 1,000년 정도의 시대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 주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소수의 도시들이 공동의 방어체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는데 로마는 라틴동맹을, 스위스는

41) Geoffrey Parker, *The military revolution: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6~7.

42) 모라트(battle of Morat, 1476)과 낭시(battle of Morat, 1477)전투는 부르그뉴의 왕인 용담공 샤를(charles the Bold)과 로렌 공작인 르네(Rene) 벌인 부르그뉴 전쟁(1474~1477) 중에 있었던 전투로, 모라트에서는 샤를의 졸렬한 지휘로 패배하였고, 낭시전투에서는 스위스군의 노력한 위치선정과 공격으로 부르그뉴 군을 물리쳤다. 샤를은 낭시전투에서 전사하여 전쟁은 종료되었고, 이후 부르그뉴 왕국의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칸톤이라는 연합방어체계가 유지되었다. 군사전략도 그리스에서 기원이 된 팔랑크스가 전략의 기저에 내포하고 있어 전쟁방식이 매우 비슷했던 것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로마와 스위스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대한민국<sup>43)</sup>

		로 마	스위스	대한민국
국가체계 (초기)		도시국가 연합	도시국가 연합	공화국
군사체계		징병제	징병제	징병제
첫번째	도전	이민족의 공격 (삼니움, 갈리아족 등)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 부르고뉴 등)	6·25 전쟁
	응전	카밀루스(로마군단)	변화를 위한 주도세력 없음	연합군에 의한 응전
두번째	도전	주변 강대국 (카르타고 등)	-	진행 중
	응전	마리우스 (코호르트 체계)	-	
세번째	도전	군내 내의 문란	-	
	응전	권력투쟁에 몰두 / 실패	-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와 스위스는 첫 번째 도전까지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국가가 직면했던 주변국의 위협은 상대방보다 우수한 군사 시스템과 국가 수호의 기치 아래 발휘된 강력한 투쟁심으로 돌파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3) 〈표 1〉은 필자가 앞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전은 필자의 주관에 의해 선정한 것임.

헨슨(Victor Hanson)은 서구가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군사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직과 규율을 만들어내고 사기를 형성하여 높은 군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sup>44)</sup> 초기 로마군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자신들만이 국가의 사회체계를 수호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으며, 스위스군도 용병으로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다가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전쟁에 참가할 만큼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 다시말하면, 개개인이 국가의 운명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결국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면, 시공을 초월한 두 국가간의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로마는 이후에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스위스는 왜 대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창조적 소수자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국가적 위기순간마다 위대한 장군들과 집정관들이 등장해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환란을 해체해 나갔다. 전투란 자신의 의지와 상대방 의지 간의 겨룸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훌륭한 리더의 존재는 병사들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열정을 북돋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sup>45)</sup>

반대로 스위스는 그렇지 못하였다. 스위스 정치체제는 군대를 구성할 때도 특정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도시마다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군대를 구성하였고, 도시국가별로 선봉군

44) Victor D. Hanson, *Carnage and Culture*(New York: Anchor Books, 1995), pp.15~25.

45)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서울: 책세상, 2009), 59~76쪽. 몽고메리는 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기습, 역량의 집중, 전군(全軍)의 협조, 통솔, 단순성, 신속한 행동, 기선(機先)을 들었고 전쟁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제너럴십이라고 생각하여 전투는 누가 더 월등한 제너럴십을 갖고 있느냐에 결정된다고 보았다.

(vorhut), 본대(gewaltshaufen), 후속군(nachhut)를 편성하였으며, 각 군의 지휘관도 도시별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휘체계의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효과적인 제너럴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즉, 창조적 소수자가 탄생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었으며, 특정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단체에 의한 군의 변화도 필요하였지만 연방정부 자체가 위기가 종료되면 군사기구를 해체했기 때문에 응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 스위스의 문제점이었으며, 로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 나. 현대 한국군에 주는 교훈

현대전쟁에서 고대 로마나 중세 스위스처럼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힘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반추(反芻)해 보면 군사적으로 교착상태(deadlock)에 있을 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결국에는 역사였다. 마우리츠가 근대전쟁의 수행체계를 바꾸어 놓았던 연속사격술(volley fire)도 로마의 전술에서 착안한 것이었으며, 프랑스의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폴레옹은 항상 역사와 전사(戰士)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특히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방분야에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군의 발전을 위해서 앞에서 논의한 로마와 스위스의 도전과 응전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창조적 소수자를 육성하거나 조직<sup>46)</sup>해야 한다. 그들은

46) 본 논문이 토인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의 주체가 창조적 소수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논문전개상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역사는 어느 특정 대상만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객체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첨병들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조타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의 선택과 판단이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면, 경제나 사회적 제도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실시하면 되지만 국방은 한번의 실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19세기 프러시아가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이후 제국적 지위에 갖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러시아의 장교들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이며, 그들로 이루어진 참모제도는 매우 우수하여 프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군대로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47)</sup> 따라서 한국도 창조적 창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교들이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구성된 훌륭한 인력집단으로부터 창조적 소수자 및 집단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로마와 스위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들 모두는 각자가 안보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전투에 참가하였고 이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받았으며 같은 시민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대립을 멈추고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가와는 대비되게,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이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부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자, 즉 사회적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가는 것이다. 단, 이러한 변화 및 발전에 추진력을 제공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군사적으로) 훌륭한 소수자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47) Gordon A. Craig, *The Politics of the Prussian Army, 1640~1945*(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p.50~55.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사회지도층부터 도덕적 의무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부터 군 복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 동맹체제를 유지/강화시켜야 한다. 동맹이란 “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맺는 공식적인 군사적 연대 관계”<sup>48)</sup>이다. 로마가 라틴동맹을 스위스가 칸톤 동맹을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했듯이 자국의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첫 번째 위협을 방어했다고 해도 계속되는 공격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국력이 소진되게 된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으로 안보가 보장된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 정도 강한 일본은 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군사에 대한 관심이 일반대중 사이에서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적인 전쟁의 역사를 기술하거나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sup>49)</sup>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쟁은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결국 역사

48)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2.

49)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제98호, 283~284쪽

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왜란을 마치고 유성룡은 징비록이라는 기록을 남겨 후대에 같은 치욕을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후세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 병자호란과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우리 현실을 고려한 전사에 대한 연구가 우대받고 학습하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토인비의 문명사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 토인비는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은 외부에서 마지막 도전은 내부에서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전은 6·25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응전으로 현재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치유하고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그리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두 번째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예측이 맞다면 도전은 내부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6·25전쟁 당시보다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거와 같이 무력하게 밀리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핵실험의 성공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군사전략에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분쟁은 점점 비판의 수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의 우경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는 동북공정과 이어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한국과 주변상황을 고려한다면 다가올 도전은 첫 번째 도전보다 더 복잡하고 강력할 것이며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치욕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첫 번째 도전에 대한 응전의 성공함에 아직도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자아의 우상에 빠진 중세 스위스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고대 로마의 슬기로우음을 본받아 역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4. 1. 1, 심사수정일: 2014. 2. 11, 게재확정일: 2014. 2. 19)

주제어 : 역사의 연구,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자, 동맹, 팔랑크스, 자아의 우상화

<ABSTRACT>

The Challenges and Responses of the Military Systems :  
the Ancient Roman Empire, Swiss in the middles ages  
- The Military Lesson Given to Us -

Ji, Gu-yong

Arnold J. Toynbee mentioned in his book, 『A study of History』 that Civilization had repeated the circulations of birth, growth and decline. He thought that the important factors of growth and decline were the challenge. And the future of nations would be determined by how they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If his assumption which history repeats itself according to the circulation above mentioned were right then it would be possible for these suggestion to be able to apply to countries. So I hope to examine whether the Toynbee's suggestion was valid in the military area.

Challenges of military field are divided into two factors. These are the internal challenges such as revolt, social instability and any trial of regime change and external ones caused by enemy actions. How to respond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ttack are the essential things to maintain and secure the nation. I studied and developed the logic by showing the examples of ancient Roman empire and Swiss of the middle-ages whose military environments and conscription were very similar to Korea.

I also analyzed what would the examples of the two countries give us valuable lessons on the bases of challenges and responses of the military systems, and how would be our country in the future.

Key Words : A study of history, challenge and reponse, minority of creative, alliance, phalanx, ego-idolization